

영화에서 재현되는 조선족 양상에 대한 연구

201921652 남궁진

목차

I. 서론

II. 영화에서의 조선족 재현 양상

- II-1. 흥폭하고 비도덕적인 범죄자: <황해(2010)>
- II-2. 연민을 일으키는 흉악한 복수자: <미씽: 사라진 여자(2016)>
- II-4. 악인 프레임에 갇힌 조폭: <범죄도시(2017)>
- II-3. 이유 불문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이기주의자: <청년경찰(2017)>
- II-5. 수동적인 범죄자 집단: <극한직업(2018)>

III. 영화 속 조선족 재현 양상과 오리엔탈리즘의 관계

- III-1.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III-2. 동양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IV. 결론

V. 참고 문헌

I. 서론

영화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위인의 일생을 미디어로 제작해 기념하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사건을 재조명하여 사람들을 계몽시키기도 하며, 실제 상황을 각색하여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기에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제작물을 보고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사회적 담론과 호응한다.

21세기가 되고 정보 통신의 발달과 함께 영화는 우리에게 훨씬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영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리면서 영화를 보고 느낀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주고받는다. 그렇기에 영화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 무거워졌다. 이는 <청년경찰(2017)>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청년경찰(2017)>은 두 명의 경찰대생이 펼치는 활약을 다룬 액션물이다. 그러나 여성을 납치하는 악역을 전부 조선족으로 세우고, 실제로도 중국 동포들이 머무는 대림동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이는 조선족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 범죄의 바탕에는 조선족이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결국 대림동 일대의 조선족들은 ‘중국 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 영화 바로 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법원에 해당 영화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¹⁾ 그만큼 영화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 한인 동포를 이르는 말이다. 19세기 중엽부터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일본에게 지배당하던 시기에 강제이주를 겪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렇기에 이들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 된장, 김치찌개 등의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도 중국 음식 또한 즐겨 먹으며 아리랑, 부채춤 등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승하면서도 마작과 같은 중국 문화를 수용했다. 또한 조선족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국어국문학의 세부 연구 분야인 방언학에서는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의 지역 방언이라는 연구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그 음운, 문법, 어휘적 특징을 연구하기도 한다.

중국의 총 55개 소수 민족 중 하나에 속하게 된 조선족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영향으로 남한보다는 북한과 더 활발한 교류를 해 왔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남한과도 교류가 이어졌고, 이후 직·간접적으로 남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는 역이주가 이루어졌다.³⁾ 그러나 조선족은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병존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한국 민족의 후예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본고에서는 <황해(2010)>와 <미씽: 사라진 여자(2016)>, <범죄도시(2017)>, <청년경찰(2017)>, <극한직업(2018)>의 총 다섯 편의 영화를 통해서 조선족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1) “‘조선족 거리는 납치의 거리?’…중국 동포들 “영화 청년경찰 상영 금지하라””,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65422&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2019.12.21.)

2) 전월매, 「‘타자’와 경계: 한국영화에 재현되는 조선족 담론」, 『겨레어문학』, no.56, 겨레어문학회, 2016, 168쪽.

3) 위의 글, 같은 쪽.

한, 오리엔탈리즘과 관련하여 영화에서 조선족을 특정 방향으로만 캐릭터를 설정하여 양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영화에서의 조선족 재현 양상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가진 조선족을 한국 영화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황해(2010)>, <미씽: 사라진 여자(2016)>, <범죄도시(2017)>, <청년경찰(2017)>, <극한직업(2018)>의 총 다섯 편의 영화를 바탕으로 조선족이 영화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II-1. 흉폭하고 비도덕적인 범죄자: <황해(2010)>

<황해(2010)>는 돈을 벌어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살인 청부를 받아 한국에 밀입국한 조선족 '구남'을 주인공으로 흘러가는 영화이다. 살인 청부를 의뢰 받았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건너가 6개월 전 떠난 아내를 찾아 데려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 '구남'은 결국 살인 청부를 완료하지도, 아내를 찾아 데려오지도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가 살인을 해야 하는 대상인 '김승현'은 이미 한국 조폭에 의해 살해당하며,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해버린 '구남'은 한국 경찰에게는 살인범으로, 한국 조폭에게는 현장 목격자로 몰려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어 버린다. 거기에 '구남'에게 살인 청부를 맡겼던 개장수 '면가'마저도 증거를 완전히 인멸해버리기 위해서 조선족 조폭들과 함께 '구남'을 죽이러 한국으로 온다. 비록 영화의 주인공이고, 모든 전개는 '구남'을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정작 '구남'은 주체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없다. 모든 사건은 '구남'을 두고 흘러가지만 '구남'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며, '구남'은 견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사건들 속에서 헤매기만 할 뿐,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나마 자신의 아내로 추정되는, 토막살인 당한 시체를 화장해 유골함을 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 오르지만, 결국 고향의 땅조차 밟지 못하고 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조선족인 '면가'는 잔혹무도하고 악랄한 캐릭터로 묘사된다. 그는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르며, 그에 대한 양심이나 자책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자신이 임무를 맡겼던 '구남'조차도 완벽한 증거 인멸을 위해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한 신용이 없는 캐릭터다. 즉 영화에서 조선족이 거주하는 연변은 살인 청부가 암암리에 성행하는 공간이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조폭들 간의 싸움 및 살인 등의 범죄는 그 기저에 조선족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조선족은 맡은 바 임무가 완수되면, 파견된 사람조차 죽여 버리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II-2. 연민을 일으키는 흉악한 복수자: <미씽: 사라진 여자(2016)>

<미씽: 사라진 여자(2016)>에 등장하는 '한매'는 결혼이주 여성이다. 4년 전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이주해 온 그녀에게 매우 불행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닥쳐온다. “한국말 한다고 비싸게 사온 머느리, 한국말 배워 도망가면 어찌냐?”며 한국어에 서툰 한매를 위해 한국어 교실에 보낼 것을 권유하는 이웃 결혼이주인 여성에게 호통을 치는 시모는 ‘한매’의 긴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잘라 버린다. 지체 장애를 갖고 있고 생활력도 없는 남편은 그녀를 오로지 성적 도구로만 간주할 뿐이다. 이처럼 이 영화는 ‘한매’를 결혼이주 여성으로써 겪을 수 있는 상황 중 극한의 상태로 몰고 간다. 가부장적 문화와 시모의 간섭은 ‘한매’를 속박하고 철저히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고 있으며, ‘한매’는 새로운 문화에 자신을 융합하거나 자신을 대하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어떠한 반발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한매’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스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전환점은 바로 모성애다. 가족들은 그녀의 임신 소식에 매우 기뻐하지만 딸을 출산했음을 알고는 더욱 그녀를 구박하고, 선천적인 간 질환에 힘들어하는 딸을 모른 척 방치하며 아동방임을 가한다. 이에 절망한 ‘한매’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에 반발하며 도망치듯 딸을 이끌고 서울로 가 종합병원에 입원시키지만, 딸의 희귀병을 치료하기에는 돈이 부족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성매매, 장기 적출과 같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술비를 모았지만 그녀의 딸은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고, 곧 사망하고 만다. 자신의 딸이 급성 폐렴에 걸려 위급하다는 이유로 ‘한매’의 딸을 사망으로 내몬 해당 병원의 의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한매’는 딸의 보모로 접근하여 납치한다. 계속되는 불행에 시달리면서 연민을 유발하는 조선족 여성은 결국 어린아이를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는 흉악한 범죄자로 전환된다.

II-3. 악인 프레임에 갇힌 조폭: <범죄도시(2017)>

<범죄도시(2017)>는 중국 조폭 조직에 맞서 싸웠던 강력반 형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픽션이다. 이를 영화에서는 “이 영화는 2004년 금천경찰서 ‘조선족 조폭소탕작전’에 기초한 픽션으로 영화에 나오는 인명, 상호, 내용 등은 철저히 허구임을 밝힙니다.”라는 안내 자막을 맨 처음과 끝에 넣음으로써 명시하고 있다. 참고한 사건은 바로 2004년 서울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의 왕건이파 와해, 2007년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연변 흑사파 와해 사건이다.⁴⁾ 영화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적절히 교차시키면서도 그 중 2004년 서울 남부경찰서의 왕건이파 와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세 조직의 세력 다툼이었던 실화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장첸’, ‘위성락’, ‘양태’라는 가상의 인물 3인조를 창조하였다. 기존에 가리봉동에 정착하여 세력다툼을 하고 있던 춘식이파, 이수파, 독사파를 단번에 억누르고 등장한 이 3인조는 그들만으로 구성된 ‘흑룡파’를 만들어 세력을 넓혀갔다. 이들은 노래방 매니저의 팔을 자른다던지, 채무자의 손을 망치로 찍어 누른다던지 식의 잔혹함을 보여 순식간에 가리봉동을 휘어잡는다. 수십 명이 조직에 가담하여 동네를 장악했던 실화와는 달리 단 3인조가 동네를 장악함으로써 이들의 잔혹함은 배가 되었다. 악당 중에서도 강한 악당이 탄생한 것이다.

한편, 가리봉동의 관할 경찰서인 금천경찰서에서는 갑자기 부쩍 잦아진 강력 범죄에 촉각이 곤두섰다. 언제 자신도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험싸인 시민들

4) “영화 《범죄도시》 배경이 된 실제 사건과 인물”,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962>>, (검색일: 2020.02.01.).

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조직간 다툼을 중개하기 위해 ‘마석도’를 포함한 금천경찰서 강력반이 조선족 조폭소탕작전에 나선다. 그중 ‘마석도’는 기존 조폭조직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구의 사내로, 자신의 무력을 이용하여 나름 동네의 치안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근무 시간에 룸살롱을 방문하고, 체포한 범인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무력을 쓰는 등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인이 되는 영웅이며 ‘장첸’을 포함한 3인조와 대적하는 인물이다.

이렇듯 영화는 영웅과 악인의 구도를 명백히 보여주며 일종의 대결 구도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악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동네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영웅이 행하는 몇 가지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은 자연스레 넘어가진다. 즉,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연대와 공감의 재현으로 -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⁵⁾에서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강한 악당과 더 강한 영웅이라는 이중 망상을 통해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개인에게서 벗어나 민족으로까지 성급하게 번져나갔다. 영화 내 등장하는 세 조직 중 유일하게 한국인 조폭이었던 춘식이파의 두목 ‘황춘식’은 유일하게 ‘장첸’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마석도’와 꾸준하게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조폭 간의 관계에 대해 ‘마석도’에게 알려주면, 그 대가로 웬만한 중범죄가 아닌 이상 눈을 감아주는 형식의 거래가 계속되었다. 마지막 작전에서도 룸살롱을 작전의 장소로 쓰게끔 허락하고 몰래 경찰들을 들여보내줌으로써 경찰에게 협조했고, ‘마석도’로부터 방검복을 받아 입은 덕에 ‘장첸’으로부터 살해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선과 악의 구도에서 영웅 ‘마석도’와 함께 선의 측에 섰다고 볼 수 있으며 춘식이파와 달리 흑룡파에 협조하거나 살해당한 이수파와 독사파는 악의 측에 함께 서거나 악을 강조하는 행위에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석도’와 ‘장첸’의 개인에서 벗어나 한국인 민족과 조선족 전체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갈려 서로 다른 측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II-4.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에 가담하는 이기주의자: <청년경찰(2017)>

<청년경찰(2017)>은 <황해(2010)>이나 <미씽: 사라진 여자(2016)>과는 달리 조선족을 하나의 캐릭터로써 재현하지 않는다. 작중에 부여된 이름을 가지고 뚜렷한 성격 및 역할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밀려나 그저 여러 명의 엑스트라 무리가 된 이들은 악당이 되어 영문도 모른 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들은 난자 적출 시술을 불법적으로 감행하는 산부인과 의사 ‘고준’의 밑에서 가출 여성들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일들을 한다. 대림동의 양 꼬치 가게로 위장하여 일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봉고차를 몰고 다니며 납치한 여성들을 비좁은 곳에 몰아넣고 반항하면 가차 없이 발로 차버리는 등 비인간적으로 대우한다. 영화는 가게에 끌려온 여성들은 그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조선족들의 행동으로 충분히 묘사해주는 데, 이를 통해 조선족들은 일말의 동정심도 존재하지 않는 매정하고 야비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또한 <청년경찰(2017)>에서는 조선족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에 대한 묘사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두 주인공을 대림동으로 데려다 준 택시기사의 대사다. 납치

5)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연대와 공감의 재현으로 -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7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 127-147쪽.

된 여성을 찾아 나선 두 주인공을 택시에 태우고 대림동까지 데려다 주며 그 택시기사는 이곳을 일컬어 “경찰들도 잘 안 다니는 위험한 동네”라며 경고한다. 이러한 대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대해 불쾌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실제 지명과는 무관하게 해야 옳다. 그러나 공간적 배경인 대림동은 대림역 팻말로 하여금 그 장소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실제로도 대림동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촬영했다. ‘스토리의 내용은 모두 허구’임을 밝히는 자막을 넣었으나 엔딩 크레딧과 쿠키 영상까지 모두 끝난 이후에 나오므로 실제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이 자막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소를 연관시키는 곳에서 이 주변을 가장 잘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기사가 하는 대사가 실제와는 전혀 무관한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II-5. 수동적인 범죄자 집단: <극한직업(2018)>

범죄/느와르, 미스터리에서 하나의 주요 인물이 되어 온갖 범죄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조선족은 점차 스토리 내 비중이 축소되고 설정이 단순화되었다. 결국 범죄 장르에서 탈장르하여 액션 활극, 코미디까지 뻗어나간 조선족의 부정적인 설정은 <극한직업(2018)>에서 극에 달한다. ‘고 반장’과 마약반 팀원들이 창업한 수원 왕갈비 통닭 프렌차이즈 사업을 이용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상인들은 모두 조선족이다. 그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며 마작 등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병존 형태인 조선족 문화의 특징을 영화 내에서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조폭들과 같은 패거리이면서도 그들보다 서열 상 아래 존재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구사인데, 조폭의 말단들은 전부 연변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거나, 중국어와 미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반면, 그 조폭들의 우두머리 격인 ‘테드 창’은 완벽한 억양의 표준 한국어를 구사한다.

사실 이렇듯 영화 속 악당 조직의 간부와 말단의 차이는 <청년경찰(2017)>과도 유사성을 보인다. 조직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캐릭터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반면, 말단은 전부 연변 방언 특유의 억양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직의 간부급 캐릭터가 전부 한국인이거나 혹은 조선족이었으나 한국의 억양 및 언어적 특징을 확실하게 배운 것으로 생각된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이러한 영화 속 악당 조직의 간부와 말단의 관계는 무의식 속에 한국인이 조선족을 부리는 위치에 있으며 민족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여태껏 한국 영화에서 조선족은 한국으로 건너와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여기에 간부급 캐릭터는 어떠한 이유로 완벽한 한국어 억양을 구사하며, 이로써 간부와 말단을 이등분시켰다. 이후 조선족은 이 간부로부터 명을 받은 내용만 실행하는 매우 수동적인 캐릭터로 전락했으며, 범죄 영화에서 탈장르화하여 코미디로 끌어오으로써 멋지게 악당을 소탕하는 주연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연으로만 재현되는 것이다.

III. 영화 속 조선족 재현 양상과 오리엔탈리즘의 관계

III-1.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 사회에 있어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상당히 부정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한국인들에

게 조선족이란 가난하며,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몰염치한 이미지를 가진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2013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관용과 신뢰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⁶⁾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집단들에 대해 평소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10점 사이에서 말씀해주십시오. 매우 싫어하는 집단이면 0점, 중립이면 5점, 매우 좋아하는 집단이면 10점을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세 집단 중 응답자가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 조선족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각 소수자에 대한 혐오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젊은 세대일수록 조선족을 더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혐오 수준에 있어서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조선족을 향한 혐오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 논문은 조선족의 역사와 한민족에 대한 정서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의 하나로서 영화의 역할이 주목된다. <황해(2010)>부터 조선족 악당은 범죄/스릴러 혹은 미스터리 장르에서 하나의 재미있는 소재로써 소비되었다. 이후 이 소재는 해당 장르에서는 하나의 클리셰⁷⁾로 굳어지게 되더니 점점 탈장르화 되어 액션 활극, 코미디물에서도 조선족 악당 설정을 소비하기에 이르렀다. 그 설정도 점점 단순화하여 <황해(2010)>에서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구현하였지만, <극한직업(2018)>에 이르러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마약상으로만 구현될 뿐,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영화에 나타나는 조선족의 설정이 일관되게 범죄자로 비춰지는 것에 모자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동기에 대해서는 생략이 일어나니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선족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혐오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III-2. 동양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일컫는 말로써, 실제 동양이 아닌 창조된 동양으로써 일종의 환영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럽인들은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고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양을 매우 신비롭고 미개한 곳으로 간주했으며, 유럽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자 했다. 이 학문을 지지하는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유럽이 앞서고 동양이 뒤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그런 동양을 서구화시키기 위해 유럽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동양 지배를 합리화시켰다. 이런 오리엔탈리즘은 주로 동양의 미개함 내지 신비로움을 부각시킴으로써 나타났다.

<황해(2010)>의 조선족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면가’의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어 있고, 옷은 아무렇게나 군복을 입었다. 또한 ‘구남’의 어머니나 ‘구남’의 아이 의상은 지저분하고 촌스럽게 되어 있다. 이는 깔끔한 스타일의 한국 조직 폭력배 사장과 대조를 보인다. 이는 장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면가’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럽고 칙칙하며 난잡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조직 폭력배가 머무르는 집이나 사무실은 넓고 쾌적하며 깨끗해 보인다. 또한 조선족들이 쓰는 언어는 태반이 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은 말 한마디에 “아새끼”, “개새끼”,

6) 가상준·김재신·임재형,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vol. 12, no. 1, 통권 26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4, 65-92쪽.

7) 진부한 표현 혹은 상투구를 지칭하는 비평 용어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쓰여 뻘하게 느껴지는 표현이나 캐릭터, 카메라 스타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네이버 영화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0263&cid=42617&categoryId=42617>>, (검색일: 2020.03.03.).

“정신병자새끼 같은 놈들”과 같은 욕을 무분별하게 섞어 사용하며 이러한 욕들은 조선족들의 야만적이고 비교양적, 비도덕적인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청년경찰(2017)>과 <극한직업(2018)>에 등장하는 조선족들은 모두 한국인 아래에서 일한다. 그들이 왜 이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를 뿐이며, 그 위에는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심지어 <극한직업(2018)>의 경우, ‘테드 창’이라는 등장인물은 조선족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이며 마약 유통의 일을 하면서도 유창하게 표준어를 구사한다. 이로써 조선족은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에서도 피지배자가 되었다.

그 외에 앞에서 살펴본 다섯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선족이 흉악한 범죄자로서 묘사된다는 것이다. 조선족은 동기가 부여되던 부여되지 않던 쉽게 범죄에 가담하며,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용하기를 서슴지 않고, 사람을 매우 잔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다. 조선족의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과 잔인성은 그들을 ‘인간’이 아닌 ‘동물’에 가깝게 묘사하며, 그만큼 그들이 미개하고 야만적임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한국은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 되어 오랫동안 미개하고 야만적인 종족으로 왜곡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영화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양상들은 유럽인들이 한국을 왜곡하듯, 한국이 조선족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동양 내에서도 동양이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양에 대한 동양의 오리엔탈리즘 창조의 방식은 <범죄도시(2017)>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오리엔탈리즘은 완벽한 사실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벽한 거짓도 아니다. 어느 정도의 실화를 기반에 두고서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가공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도시(2017)>는 2004년 서울남부경찰서의 왕건이파 와해 사건, 2007년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연변 흑사파 와해 사건이라는 두 실화를 기반에 두고 몇몇 가상의 인물을 더하여 만들어졌다. 특히나 ‘장첸’이라는 인물을 다른 여타 영화들처럼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야만성을 부각시켰으며, 이외 다른 조선족 조폭들을 장첸에게 자진흡수, 혹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악에 동참하거나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개인의 잔혹성을 민족 전체로 일반화시켰다.

이런 동양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은 결국 코미디로까지 퍼졌다. 2010년 <황해>의 방영 이후,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개그콘서트에서는 영화 <황해>를 패러디한 ‘황해’코너가 방영되었다. 보이스피싱을 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상대 고객으로 하여금 매번 당하고 마는 스토리는 명청함을 부각시켰으며, 출연자들은 모두 연변 지역 방언을 구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조선족임을 내세웠다. 남루하고 낡은 옷과 결국 수동적으로 당하고 마는 설정, 그리고 어김없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설정은 영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조선족의 양상을 TV 프로그램까지 끌어와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이를 개그 소재로 활용함에 따라 조선족보다 한국인이 우위에 있다는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청년경찰(2017)>은 실제로 조선족이 머물고 있는 대림동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감행해 한국 거주 조선족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서론에서도 소개했듯이 조선족 사회 내에서는 결국 집회를 열고 재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재판은 이를 기각하였다.⁸⁾ 그러나 판사가 이 영화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록 영화의 촬영 의도는 순수했고, 납치범보다 더 나

8)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 표현의 문제 - <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vol. 36,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109쪽.

뿐 악역을 한국인이 맡았다고 하더라도 영화 속 납치가 이뤄지는 공간을 실제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점에서 여태껏 조선족을 향한 오리엔탈리즘 생산의 최고 점을 찍었다.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를 조선족들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함이 아닌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이 일을 하는 그 어떠한 동기도 설명되지 않았다. 조선족이 한국인의 지배하에 있음을 아주 당연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족을 향한 한국의 오리엔탈리즘은 점점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로 퍼지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자극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조선족이 한국의 재외 동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황해(2010)>, <미씽: 사라진 여자(2016)>, <범죄도시(2017)>, <청년경찰(2017)>, <극한직업(2018)>의 영화를 통해 조선족이 어떤 양상으로 재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통적으로는 조선족 설정을 가진 등장인물이 모두 범죄자라는 점을 가졌다. 세부적으로 <황해(2010)>와 <미씽: 사라진 여자(2016)>는 주연급 등장인물로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를 매우 세세하게 설정하였으나, <청년경찰(2017)>, <극한직업(2018)>은 엑스트라의 설정으로 하나의 배경으로써 활용하였다. 장르 또한 범죄/스릴러, 미스터리로 국한되어 있다가 점차 액션 활극, 코미디에도 등장하였으며 이윽고 개그 프로그램 코너도 제작되었다.

이렇듯 매우 비도덕적이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한국인의 명을 받아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피지배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양을 바라보는 유럽의 오리엔탈리즘 사고에서 확인한 것들과 매우 흡사했다. 결국 이러한 재현 양상의 반복 및 단순화는 이를 수용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흉악한 범죄자 조선족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가둔 틀 속에서 그들을 낙인찍고 차별을 정당화 하였다. 이는 곧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을 재생산한 동양에 대한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이다.

지난 몇 백년간,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동양이라는 틀 아래 갇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럽에 소개되었다. 신비스럽고 미개하며 야만적인 곳이라는 식의 소개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이 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실제로 동양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그들이 멋대로 생각해낸 ‘동양’을 실제 동양에 덧씌우고 있다. 이런 오리엔탈리즘의 양상은 지금 우리가 조선족을 ‘소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내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에서 한인 재외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의 범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⁹⁾ 그러나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은 장르에 상관없이 범죄자로 등장하며 이는 조선족 전체를 혐오하게 되는 인종차별적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청년경찰(2017)> 개봉 이후,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다문화 사회에서는 ‘중국 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 영화 바로 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열어 미디어를 통한 차별을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그 어떤 인종이 되었든 그 전체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 되어 당하는 차별이 부당하듯 우리가 저지르는 한인 재외 동포를 향한 오리엔탈리즘도 부당한 것이며, 바로잡아야

9)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인가?”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2556&ref=A>>, (검색일: 2020.02.28.).

할 것이다.

V. 참고 문헌

-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2007.
- 가상준·김재신·임재형,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 연구』, vol. 12, no. 1, 통권 26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4, 65-92쪽.
- 김종수, 「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44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191-209쪽.
-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연대와 공감의 재현으로 -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7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 127-147쪽.
- 송원찬,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문학과영상』, 제18권 제3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447-468쪽.
- 전월매, 「‘타자’와 경계: 한국영화에 재현되는 조선족 담론」, 『겨레어문학』, no.56, 겨레어문학회, 2016, 167-195쪽.
- 한희정·신정아,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에 대한 재한 조선족의 수용과 인식」, 『한국소통학보』, 제18권 제1호, 통권 40호, 한국소통학회, 2019, 227-262쪽.
-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 표현의 문제 - <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vol. 36,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109-135쪽.
- “영화 《범죄도시》 배경이 된 실제 사건과 인물”,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962>>, (검색일: 2020.02.01.).
- “‘조선족 거리는 납치의 거리?’…중국 동포들 “영화 청년경찰 상영 금지하라””,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65422&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2019.12.21.).
-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인가?”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2556&ref=A>>, (검색일: 2020.02.28.).